

## 찰스 테일러의 인정의 정치

오 승 은

### I. 무지(無知), 인정의 부재, 그리고 차별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와 생김새가 다른 (비서구) 외국인은 열등한 존재, 심지어는 전염병을 옮기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2011년 9월 부산에 사는 귀화인 구수진씨의 목욕탕 입장 거부 사건 보도를 보면서 해본 생각이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6년간 한국에서 살았고 4년 전 귀화해 주민등록증도 받았고, 여권도 대한민국 여권이지만, 구수진씨는 서류상의 한국인일 뿐 동네 사우나를 같이 써도 좋은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생김새도 피부색도 다른 외국인일 뿐이다. 그리고 그 외국인은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고 다른 사우나 손님들이 불평하기 때문에 사우나 주인은 국적은 한국인임에도 구수진씨의 입장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구수진씨를 내쫓은 사우나 주인이나, 그 주인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다른 사우나 손님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 재생산된 되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우즈베키스탄인 혹은 중앙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전염병을 옮기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배운 기억은 없다. 그렇다면 이 편견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궁금증에 대한 부분적인 답은 최근 새로운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의 여러 줄기에서, 페미니즘, 성적 소수자 문제, 포스트식민주의, 다문화주의 등에서 인정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인정의 정치”를 둘러싼 논의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 집단에 대한 대중적 무지(無知)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무지는 그 집단에 대한 인정의 부재를 낳게 되고, 인정의 부재는 인정의 부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를 멸시하게 만들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왜곡시키며 심지어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상황에 인정 논의를 대입시켜 본다면, 서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언론보도 등 공적 담론은 역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동양 혹은 모든 비서양적 존재는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차별을 굳이 가르치지 않는 않았더라도, 이러한 인정의 부재가 결국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차별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지가 무시와 차별로 전환된 셈이다.

## II. 찰스 테일러와 인정의 정치

‘인정의 정치’ 문제에 대한 연구를 선도한 사람은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의 사회 운동가이자 정치철학자인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이다. 테일러는 1992년 출간된 책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Amy Gutman,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첫 장 “인정의 정치”를 쓰면서 논의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였다. 테일러는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주의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기존의 서구 자유주의 전통을 허물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찾고자 하였다. 테일러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흑인, 성적 소수자 등 비주류 문화를 결과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자유주의 철학 전통의 불균형적인 발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다면 충분히 다문화주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테일러의 논의를 잠시 들어보기로 하자.

서구에서 절차적 자유주의가 주류 정치철학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근대 이후의 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세기 들어 계급이라는 위계질서의 붕괴는 구체제의 특권(honor) 대신 보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시민 존엄성을 정치의 주요 의제로 등장시켰다. 그러나 이 보편주의적 존엄성의 정치(politics of dignity)와 함께 또 다른 주요 축을 이룬 변화는 바로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라는 또 다른 개념의 등장이다. 계급이라는 위계질서의 붕괴는 개인 정체성, 개별화된 정체성(individualized identity)을 부상시켰다. 계급이라는 사회적 위계질서가

해체됨에 따라 이제 정체성은 계급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시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개별화된 정체성 형성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authenticity’라는 개념의 등장이다. 한국어에서 보통 ‘진정성’으로 번역되는 ‘authenticity’는 원래 그리스어로 주인을 의미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authenticity’에 따르면 인간 누구에게나 도덕적 판단능력이 내재되어 있어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이는 그 이전까지의 도덕관념과 대조된다. 이전에는 인간은 신과의 접촉을 통해 신의 섭리를 깨치는 것이 도덕성 확보의 유일한 통로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개별화된 정체성의 부상과 함께 주관적 전이(subjective turn)가 일어나,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충실하면 진리를 깨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퍼져나갔다. 개별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상함에 따라 개인 혹은 집단의 독특한 정체성, 타인과 구별되는 개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한 것이다.

개인 정체성의 발전과 실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주류 사회와 같은 타자의 역할이다. 자기 정체성의 실현이라는 것은 혼자 독백(monologue)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타자와의 대화(dialogue)를 통해 변증법적(dialogical)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고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협상하면서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uthenticity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든 집단적 차원에서든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18세기 ‘보편성의 정치’가 부상될 때, 이러한 개별적 정체성에 근간을 둔 ‘차이의 정치’에 대한 요구도 함께 부상하였다. 그러나 개개인의 차이, 개별화된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차이의 정치’는 그간 ‘보편주의 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서로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만 최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절차적 자유주의(procedural liberalism)에만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투표권,

의료보험, 교육 같은 보편적 권리 사항을 보장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위해 공공 권력은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시 말해 각 시민들이 어떤 출신과 배경을 가진 존재인지, 그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는 애써 보지 않고 이와 상관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대하도록 한 것이다. 그 개인이 소속된 집단 간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상관한다면, 이는 절차적 자유주의가 이룩하고자 하는 평등의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기존의 절차적 자유주의 대신 실질적 자유주의(substantive liberalism)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좋은 삶이 무엇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퀘벡의 프랑스어와 문화의 보존이라는 집단적 목표를 인정해줬듯이, 소수민족의 문화적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퀘벡의 경우, 1980년대 미치 레이크 헌법 개정안(Meech Lake Accord)을 통과시켜,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는 불어로 사업을 해야 하는 규정이나 불어 이외의 언어로는 간판을 못 쓰게 하는 등의 적극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였다. 불어 사용자의 문화적 생존을 위해 절차적 자유주의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 자유주의를 적용시킨 좋은 예이다. 이는 기존의 절차적 자유주의 모델 재고를 통해 충분히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이 테일러의 주장이다.

### III. 테일러의 인정의 정치: 그 아쉬운 한계

테일러의 “인정의 정치”는 서구 정치 철학 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기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 문제제기 끝에 내놓은 해결책은 못내 실망스럽다. 테일러는 자신이 “인정의 정치”를 쓰는 계기가 됐던 미국 대학교 교과목 개정 문제로 돌아가 해결책을 제시한다. 1990년대 초 미국에서는 대학 교과목 과정 개정 논의가 촉발되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서구 문화’라는 과목 대신에 ‘문화, 사상과 가치’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비유럽 문화와 작품들을 서구 고전과 함께 배우도록 교과목 개정을 추진했었다. 테일러는 교과목 개정 논쟁에서 여성이나 비유럽 인종 등 비주류 문화 집단이 제시한 “죽은 백인 남성들로 구성된 정전(canon)을 바꾸라는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테일러는 비주류 문화 집단이 주장하는 데로 각각의 문화에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recognition of equal value)은 아니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실제 동등한 가치를 특정 문화가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연구를 통해서 입증 돼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동등한 가치는 실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잠재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가치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된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테일러의 주장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선 인정의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린다는 것이다. 모든 문화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만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A라는 문화가 가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문화는 인정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그 인정받지 못하는 문화에 속하는 소속원들이 받을 트라우마와 상처는 어찌할 것인가? 둘째 설사 테일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을 가치의 문제로 환원시킨다고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테일러는 기존의 서구 가치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기존의 서구 가치에 새로운 비서구 가치를 합하여 ‘가치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나와 같은 비서구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서구 가치야말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비서구 문화를 인정받지 못한 존재로 만든 서구의 가치관에 대한 비판 없이 그저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서구와 비서구와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결국 다시 한 번 서구의 가치가 주요 가치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문명화론을 내세워 다른 나라를 식민화하고 노예로 만들었던 서구 가치관, 서구 잣대에 대한 근본적 자기비판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 한, 서구 체계모니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위험성은 기존의 판단 기준을 문제시하는 주장을 주관주의로 일축시켜 버리는 그의 태도에서 감지된다. 푸코와 데리다의 영향을 받아, 모든 평가의 기준이란 권력의 구조에 의해 부과되고 그 권력의 구조를 더욱 강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어설픈 신니체주의 이론가’들이라고 일축해버리는 그의 논의 속에서 식민지 출신 연구자의 우려는 더욱 배가된다. 그렇게 된다면 테일러가 날카롭게 비판하는 소울 벨로우와 같은 서구중심주의자들의

주장과 테일러의 주장 사이에는 결과적으로 별반 다른 변별점을 찾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줄루 족에도 톨스토이가 있는 가?( Who is the Tolstoy of Zulus?)”라는 소울 벨로우의 주장에 담겨 있는 자민족중심주의, 다시 말해 모든 문학 작품은 서구적인 작품이 돼야 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테일러지만, 정작 서구의 잣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는 테일러에게서도 같은 위험이 감지된다고 할 수 있다.

테일러의 ‘인정’과 ‘차이의 정치’ 논의가 돋보였던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테일러는 왜곡된 비하적 이미지가 투영되 고통 받는 사람들,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다시 그것을 내면화하는 사람들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공감하고 이의 극복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정작 해답으로 내놓은 것은 거칠게 말한다면 ‘기다려라’는 것이다. 소수자의 문화가 정말로 가치 있는지 연구해서 입증이 돼야 비로소 인정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테일러도 인정했듯이 그 지평선은 멀리 있는 것으로 언제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의 해답은 동네 목욕탕 입장조차 거부당하는 구수진씨 같은 사람들에게겐 별다른 해결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총 맞은 것 같아요’라는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겐 그야말로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이다.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narodna21@hanmail.net